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24.(화) / 총 4매(본문3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창기 •☎ (044) 201-3847, 3934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2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5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자율협력주행 안전성 높일 ‘스마트 인프라 표준(안)’ 발표 25일 심포지엄서 보안통신관제기술 소개…대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3월 발족한 「자율협력주행 산업 발전 협의회」 기술교류 및 제2차 심포지엄을 4월 25일(수)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한다.

○ 「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」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,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,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.

* 국토부장관, 민간(4인) 공동의장, 자동차·인프라·정보통신 등 160여 개 기관 400여 명 참여

○ 발족식에 이어진 1차 심포지엄에서는 현대차, 삼성전자,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의 자율주행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.

* 현대차: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, 삼성전자: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
 SK텔레콤: 5G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, 이씨스: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투자

□ 오늘 개최되는 2차 심포지엄에서는 스마트 인프라(기반 시설, 이하 인프라) 표준(안) 발표, 중소·벤처기업 설명회,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기술교류의 장이 마련됐다.

① 먼저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인프라 표준(안)을 발표할 계획이다.

○ 인프라 표준은 자율협력주행에 필요한 정보 교환기준으로서, 차량과 인프라, 차량과 차량 간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보 내용과 형식 등을 표준화 하는 것이다.

○ 오늘 발표한 인프라 표준(안)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'14년부터 대전~세종 스마트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마련한 것으로,

* 대전-세종 C-ITS 시범사업('14. 7.~'17. 12, 총 220억 원, 체험단 3,000명, 15가지 안전서비스 제공)

- 협의회 내의 C-ITS(통신) 기술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표준(안)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.

○ 인프라 표준이 마련되면 관련 기업 간 중복투자과 예산 낭비를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
- 업계에 확인결과, "10여 개 기업은 단말기·기지국 제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으며, 약 60여 개 기업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"고 밝혔다.

② 아울러, 대·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자율협력주행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직접 홍보 할 수 있도록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
-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율차 해킹을 막아주는 보안기술, 자율차가 도심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·관제 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.

《주요 우수 기술 사례》

- ① 자율차 해킹을 막아주는 토탈 보안 솔루션(펜타씨큐리티)
 - 원격조작, 사이버공격,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
- ② 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서도 자율차가 달릴 수 있도록 지원(라닉스)
 - 약한 강도의 신호도 감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통신 부품 기술
- ③ 자율차가 복잡한 도심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지원(제브라앤시퀀스)
 - IoT 기술과 영상 분석 기술을 융합하여 보행자·자전거를 인식하는 기술
- ④ 자율주행차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제 기술(세스트)
 - 자율주행을 위한 단말기·기지국 및 관제시스템 등 차량통신플랫폼 기술
- ⑤ 자율차가 스마트시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(인천스마트시티)
 -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기술

○ 기업설명회와 함께 우수 기술이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 스마트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자율주행 산업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본 협의회를 통해 데이터 공유, 시험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대기업-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” 이라면서,

○ “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「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」 기술교류 및 제2차 심포지움 개최 계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김창기 사무관(☎ 044-201-3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추진개요**

- (추진목적)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·중·소 기업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방향 공유
- (時/所) '18. 4. 25(수) 13:30~17:00 / The-K 호텔(서울 양재)
- (참석기관) 국토부, 도공, 지자체, 산학연 109개 기관 300여명

□ **프로그램 구성방안**

① (네트워킹) C-ITS(통신), 보안, 지도 분과내 기업간 기술교류

- 중소·벤처기업의 혁신기술 홍보를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기업·발주처(도로공사, 지자체)와 비즈니스 미팅* 추진

*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

② (심포지엄) 스마트 인프라 표준안 발표, C-ITS 데이터 활용 공모전 계획 소개, 지자체 C-ITS 실증사업 추진방향 등 소개

③ (기타) 분과 대표 임명, 협의회 세부 운영방안 논의 등

□ **세부일정(안)**

시간	소요	내 용	비 고
13:30~14:25	55'	· 2차 심포지엄 주요내용 - 단말기·기지국 표준안 발표 - 스마트 인프라(C-ITS) 데이터 활용 공모전 계획 소개 - 지자체 C-ITS 실증사업 추진방향	
14:25~15:30	65'	· 중소·벤처기업 기술홍보를 위한 설명회	
15:30~15:50	20'	Coffee Break	
15:50~17:00	70'	· 분과내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미팅	